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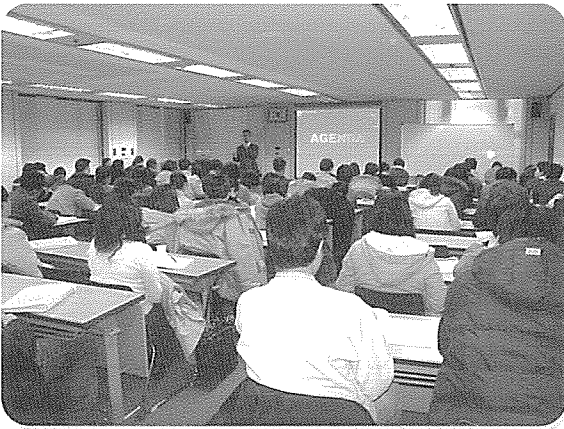
협회 동정

하여 성장한 우리협회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던 해였고, 이제는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는 해를 맞이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과 방사선이용산업기술의 도약을 위해 우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특히 종사자정보중앙등록시스템의 구축완료에 따

라 종사자의 방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정적인 시스템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, 기타 금년에 전개 되는 교육 및 국제협력 등 주요사업들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헌신과 노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.

2006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개시
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



2006년도 첫번째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이 1월 24일(화)~26일(목) (3일간) 협회 강의실에서 실시되었다. 금번 교육은 ▲방사선의 활용(동위원소

교육연구원 이기순), ▲원자력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 방사선 취급기술(한양대학교 장한기), ▲운반사고시 대응절차에 관한 시청각 교육, ▲방사선장해방어 및 안전관리 실무(고려대학교 유영만), ▲방사선 안전문화(동위원소교육연구원 이병옥), ▲사고시 응급환자 처치요령에 관한 시청각 교육, ▲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관계법령(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재성), ▲방사선 안전관리 실무(삼성생명과학 연구소 문승환), ▲교육평가 순으로 진행되었다.

협회에서는 금년에도 신규종사자 및 기존종사자의 교육수강 편의를 도모코자 지방 순회교육 36회, 서울 지역 교육 29회 이상 등 전년도에 비해 교육시행 횟수를 증평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.

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 조직위원회 회의 개최
6ICI 개최지 제주도로 결정



제6차 세계동위원소대회(6ICI) 조직위원회(위원장:이명철 협회부회장) 회의가 1월 9일(월) 정읍방사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.

이날 회의에는 김종경 사무총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.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결과에 따른 업무진행사항 보고와 ▲6ICI 개최지로 국외 참가자들의 호응도를 감안하여 제주도를 최종결정 하였으며 기타 ▲분과별 실무위원 선정에 대한 검토 ▲Scientific Program에 대한 논의

▲IIS 국제심포지움(2006.7.16~20, 에딘버그)에서
의 6ICI 홍보부스 설치방법 ▲6ICI로고, 테마, 포스터
디자인 및 홈페이지 디자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.
한편 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『세계동위원소대회

유치를 통한 RT산업 활성화방안 연구』과제에서는
6ICI 개최 준비활동으로 우선 6ICI 홈페이지를 3월경
에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.

QSA Global 관계자 협회 내방



독일 QSA Global 사 관계자 및 일본 Chiyoda

Technol 사 관계자가 함께 1월 23일(월) 우리협회를
내방했다.

정종혁 상근부회장은 방문단 일행을 맞이하여 우리
협회 및 우리나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현황을 소개하
였다.

QSA Global 사는 Armersham 사와 AEA
Technology 사를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업무
개편에 따라 서울방사선서비스와 치요다테크놀(일본)
이 50%씩 출자하여 설립한 에스알에스테크놀(대표
토시카즈 호소다)과 지난 2006년 1월 우리나라 방사
성동위원소 취급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.



유관기관 동정

과학기술부

아시아 방사선의학자들 서울에 모였다

-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 방사선종양학워크숍 개최 -

한국 등 아시아 8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원자력협
력포럼 FNCA(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
Asia) 의학워크숍이 1월 23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열
렸다.

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, 중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
시아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 등 총 8개국 전문가 약 30
여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'자궁경부암과 비인강
암의 항암방사선 병합요법 치료기술의 표준화'를 목
적으로 서울 공릉동의 원자력의학원에서 열렸으며,
자궁경부암의 방사선요법 사례 및 새로운 임상적용에
대한 연구 성과와 비인강암의 화학적방사선치료 등의
논제가 발표되었다.

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부(부총리 겸 장관 오명)
와 원자력의학원(원장 이수용) 방사선종양학과 전문
의료진이 참가하였다.

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아시아원자력포럼의 의학위
크숍은 인적교류를 통한 선진 치료기술을 전파, 저개
발 아시아 국가의 방사선 치료기술을 향상시키는데
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993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
개최되었다.

특히 아시아 국가 내 방사선 치료기술의 표준화를
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목
표 아래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문 의료진을 중심으로
'자궁경부암 3기 말 환자의 방사선치료를 위한 지침

